

대형마트서 20만8000원 전통시장에선 15만4000원

“제수용품, 차래시장이 확실히 싸다”

광주 4인 기준 25개 품목 가격 비교…평균 20% 저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생선, 채소 등 추석 차례상 제수용품이 대형마트 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일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이 전국 16개 광역 시·도 25개 지역 주요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의 추석 차례용품 2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광주지역은 4인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평균 15만483원이 드는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20만843원이

필요해 전통시장이 5만3000원 가량 싸다.

전남지역은 전통시장 평균가격이 17만9829원이었으며 대형마트 평균 가격은 18만7790원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경우 전통시장 차례상 평균 비용은 16만6485원으로 대형마트(20만9557원)보다 20.6% 저렴했다.

조사 품목 25개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보였다. 송편, 두부 등 기타 품목의 전통시장 판매 가격이 대형마트 대비 37.3% 싸고

생육(21.9%), 채소·임산물(20.3%), 선어류(15.8%) 등도 전통시장 제품의 가격이 낮았다.

탕국용 쇠고기(600g)는 대형마트에서 3만5000원이었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약 1만원이나 싼 2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낮던 품목은 고사리(400g)였으며 전국 전통시장 평균 가격이 4949원으로 대형마트 평균가격(8349원)보다 40.7%나 저렴했으며, 양파(49.1%), 유과(44.7%), 간도 라지(35.6%), 숙주(34.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시장경영진흥원은 추석을 앞

두고 전국 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순전증양동 상가가 25일 오후 2시부터 즉석가요제, 1000원 경매전, 경품추첨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시장경영진흥원 정선희 원장은 “많은 유통 단계와 낮은 마진률 때문에 전통시장 상품들이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통시장별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특가 판매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어 올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즐길거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기업 SSM 입점하면 다 죽는다”
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대기업 대형마트 SSM 입점반대 시민민결의대회’를 열고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평생에 한번’ 생애 첫 대출 13일 개시

8·29대책 시장반응 주목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에 포함시킨 세부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

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세부 지침에서 대상 주택에는 신규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리 5.2%를 적용해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13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구입자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리 5.2%를 적용해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13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에이블 미디어는 김광빈 대표(사진)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 앞선 서비스, 광주주의 매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192-4362.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에이블미디어 출범

10일부터 광고영업

종합 광고 대행사 유스트커뮤니케이션(www.youfirst.com.com)의 자회사인 에이블미디어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미디어 렘(Media Representative)인 에이블미디어는 광주와 광고대행사를 대신해 매체전략을 수립해 광고를 집행하고, 매체를 대신해 광고영업을 진행하는 회사다.

에이블 미디어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기획, 온라인, PR 대행 등 전방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급변하는 광고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에이블 미디어 김광빈 대표(사진)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 앞선 서비스, 광주주의 매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2192-4362.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가정에서 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캔 맥주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오비맥주는 7월 한 달 동안 캔 맥주 출고량이 274만 상자(상자당 500ml짜리 20캔)로, 월 판매량으로 역대 최

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캔 맥주 출고량은 올 1월 11만 상자에서 2월 121만, 3월 158만, 4월 174만, 5월 194만, 6월 168만, 7월 274만 상자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맥주에서 캔 맥주의 판매 비중 역시 올 1월 21%에서 7월 29%로

사라지는 암보험 “막차 타자” 북적

절판 마케팅 효과 가입자 몰려…꼼꼼히 살펴야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이 암 진용보험을 하나둘씩 없애는 가운데 남아있는 암보험 상품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의 ‘신한콜하나로 암보험’은 보통 월 2700건 안팎의 가입 실적을 올렸으나 지난달은 3600건으로 급증했다.

고객들이 첫 달 내는 보험료를 뜻하는 조회보험이라는 것을 예상해 암보험 신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도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AIA생명이 지난 1일 내놓은 ‘뉴 원스톱 암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큰 상품 ▲최초 암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큰 상품 ▲특약보다는 주계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상품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암환자 증가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대형 생생보험사들은 암 전용보험을 없애 버렸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처럼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둘러 가입하다 보면 상품 내용이 좋지 않은 암보험을 고를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 ▲보장기간이 긴 상품

▲최초 암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큰 상품 ▲특약보다는 주계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연합뉴스

벤츠코리아

F1 레이스

관람 이벤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다음 달 22일부터 영암군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기간에 F1팀인 메르세데스 GP 페트로나스의 레이스 GP 볼을 볼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는 올해 벤츠 AMG 전 차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F1팀인 메르세데스 GP 페트로나스의 드라이버 미하엘 슈마허 등의 레이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랑프리 결승전 패키지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보해 매취순 10년산 선물세트 출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추석을 앞두고 웰빙·실속 전통주 세트를 선보였다. 보해가 매취순 출시 20주년을 맞아 선보인 대용량 매실주 ‘매취순 10년산’ 선물세트(사진)는 10년 숙성시킨 프리미엄 매실주로 3L 대용량에 담아 웰빙과 실속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추석에는 500ml ‘매취순 10년산 3개들이 세트’도 출시했다. ‘매취순 10년산’ 3L의 가격은 거치대 포함 3만 9500원, 500ml 3개들이 세트의 가격은 미니어쳐 포함 2만 4000원이다.

복분자주 375ml 3병들이 세트(미니어쳐 포함)는 1만 9500원이며, 750ml



집에서 한 잔…서구형 음주문화?

캔 맥주 판매 올들어 꾸준히 증가

가정에서 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캔 맥주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이는 국내 맥주시장이 올 상반기 84만3306k(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로 작년 대비 4.5% 줄어드는 등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캔 맥주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1인 가구가 늘고 젊은 세대의 ‘나홀로 음주’가 늘면서 외부 회식 자리보다는 가정에서 가볍게 맥주를 즐기는 서구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비맥주는 풀이했다.

전체 맥주에서 캔 맥주의 판매 비중 역시 올 1월 21%에서 7월 29%로

8%포인트 늘었다.

이는 국내 맥주시장이 올 상반기 84만3306k(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로 작년 대비 4.5% 줄어드는 등 침체 안에 남구출장소를 채웠다.

광주신보는 남구 출장소를 채운다음 기관과 연계해 대출과 신용보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중심 ‘논스톱 보증서비스’ 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재욱 이사장은 “남구 출장소 개소를 계기로 고객중심 경영침을 실천하고 남구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출장소 개소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용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전복구이전문점

전복장터



각종 모임한정,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대표 조 경래

전복장터를 찾으시는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정해 역 완도 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정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끼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예약 문의 062)576-8600



민속촌(주)

1989·민속촌

갈비전문점 민속촌(주)와 보쌈전문점 무진주는 2011년 3월 1일 광주 상무점 개점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본사관리자(경영지원부) 및 영업(써빙), 조리부 경력자와 신입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직무	연봉	자격	특별 우대조건
본사/ 경영지원부	인사, 교육, 구매, 총무, 경리, 흥보 마케팅, 주차관리부	면접후 결정	해당분야 경력자(업종불문) 및 초보자는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자 또는 출입예정자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전공불문) •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한식, 일식, 중식, 일식, 페밀리 레스토랑, 기타 근무경력 모두 경력 기산점 인정)
영업점/ 경영부서	점장, 점장, 면봉 3천만원 이상 면봉 2천만원 이상 면봉 1천 3백만원 이상 영업점 써빙 직원	면접 후 결정	외식산업(식당) 근무 경력자 (한식, 일식, 중식, 일식, 페밀리 레스토랑 등 업종불문)	• 24세 이상 대학 외식산업 관련학과(외식경영학, 호텔조리학, 조리학, 식품영양학 관광학, 호텔경영학, 기타)졸업자 •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 수료증 소지자 우대
조리부/ 생산부서	조리 관리자 면봉 2천 6백만원 이상 친모, 밥도, 유통, 향 면봉, 세척 직원	면접 후 결정	조리사자격증 소유자로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초보자 및 경력자	

1차 : 서류 접수 기간 : 2010년 9월 15일 (수) 17시 까지 • 전형방법 : 1차 ~매일로 만 접수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전공 및 주특기 소개 필수), 면접초기자재, 지원부서 (희망연봉 기재)
2차 : 면접 전형 (1차 이메일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영업점 써빙(홀 직원)과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이력서만 접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

문의 및 e-mail 접수 : foacham@naver.com 문의전화 : 011-9766-3392
(이메일 사용법을 모르는 분만 전화로 상담합니다)

돼지갈비 전문점 **민속촌(주)** 보쌈 족발 전문점 **무진주**
광주광역시 북구 호남동 73-2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4